



28일 전북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2월 2차 새로운 전북 포럼에 김관영 도지사와 실국장 등 참석자들이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따른 전라북도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법무법인 에너지 이동일 대표 변호사의 특강을 듣고 있다.

도, 제14차 새로운 전북 포럼 개최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따른 전라북도의 대응 방안’ 주제로 강의 토론 진행

전북도는 28일 제14차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 김관영 지사가 이끈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50분까지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의원, 실·국장과 관련 출연기관장 및 직원 70여 명과 함께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따른 전라북도의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의와 열린 토론을 진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올해 4월부터 시작한 새로운 전북 포럼이 이제 14번째가 되었고, 이른 아침에 시간을 내서 공부하고 주제에 대해 의논

하는 것이 축적되면 우리의 큰 자산이 되고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내년부터는 좀 확대해서 강의를 듣고 싶은 직원들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지사는 이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내년 6월 시행되는데 전라북도가 재생에너지 특화단지로 지정되어 있어 분산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 법을 통해서 어떻게 단지를 활성화할지에 대한 지혜를 모아보자"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법무법인 에너지 이동일 대표 변호사는 '분산에너지법 제정에 따른 전라북도의 대응 방

안'라는 주제로 열린 강의를 진행했다.

이 대표는 "현재의 전력은 중앙집중 방식으로 해안가 등에 대형 발전소를 설치하고 송전망을 통해 수도권 등에 전력을 이송하고 있는데, 신규 송전망 설치에 지역 주민의 갈등이 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말하며, "이 법의 핵심은 분산에너지 설치의무제도와 전력계통 영향평가,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이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러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는 법에 담긴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제도를 활용하여 데이터센터, 산업단

지 등의 에너지 수요를 창출하고 수소 특화 국가산업단지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부터 먼저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분산에너지의 가격 경쟁력 문제, 전북의 분산에너지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내용의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전라북도는 내년도 매월 2회 '새로운 전북 포럼'을 개최해 인공지능, 바이오, 신산업, 일자리·경제, 농생명, 문화·관광 기타 분야별 최신 이슈에 대한 전문가 특강과 토론을 통해 직원들의 시야를 넓히고 도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김재훈기자

전북도, 이차전지 활성화 기업 전략회의 개최

이차전지 재활용 기반 사용 후 이차전지 센터 구축 방안 등 논의

전북도가 핵심 광물 가공과 사용 후 이차전지 산업생태계 조성을 선도하기 위해 28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이차전지 기업과 함께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오택립 전북도 미래산업국장 주재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국내 사용 후 이차전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성일하이텍(주), 에스이머티리얼즈(주), (주) DS단석 등 관련 기업과 전북테크노파크, 전북탄소중립순환경제협회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추진경과, 정부의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 설명, 전북 사용 후 배터리 산업 활성화 방안 논의, 기업 애로사항 청취 순으로 진행됐다. 정부는 국내 전차차 보급 확대를 위해 사용 후 배터리 시장이 급격히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재사용·재활용 등 산업 육성을 위한 법안 마련(2024년)과 이차전지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준비 중이다.

대계 육성 방향에 맞춰 기업과 함께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의 밑그림을 그리고자 이번 회의를 개최했다.

특히 새만금이 광물 가공과 재활용 분야에 특화단지로 지정되었고, 국내 재활용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성일하이텍과의 연계 가능성, 핵심 광물 가공 비축기지 건립 등 새만금이 사용 후 이차전지 산업 육성의 최적지로 보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장에서 체감하는 산업 육성 방향과 특화단지 활성화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제언했으며, 특히 재활용 분야의 순도를 높이기 위한 광물 가공 공정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의 필요성과 제도 개선 등을 건의했다. 도는 특화단지

활성화에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산업부 특화단지 범부처 협의체 건의 등을 통해 정책 반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사용 후 이차전지 연구를 지원할 센터 구축을 통해 친환경 재활용 기술 개발 등 재활용 분야는 물론 재사용, 재제조 등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다각도로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은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을 위한 2024년도 국가예산 25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사용 후 이차전지 산업 육성은 물론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재훈기자

활성화에 기업의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이번 회의를 통해 수렴한 의견들을 적극 검토하고 산업부 특화단지 범부처 협의체 건의 등을 통해 정책 반영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사용 후 이차전지 연구를 지원할 센터 구축을 통해 친환경 재활용 기술 개발 등 재활용 분야는 물론 재사용, 재제조 등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다각도로 모색할 방침이다. 한편, 전북은 이차전지 실시간 고도분석센터 구축을 위한 2024년도 국가예산 25억원을 확보함에 따라 사용 후 이차전지 산업 육성은 물론 이차전지 초격차 기술 확보도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재훈기자

자치경찰제 정착 유공자 포상

전북자치위, 치안행정·범죄예방 기여 공로자 58명 자체발굴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형규)는 28일 도청 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에서 지역맞춤형 치안행정 및 범죄예방에 기여한 공로자 6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표창은 연말을 맞아 언론보도 및 수범사례, 범인 검거 등 자치경찰사무를 성실히 수행해 지역사회 안전을 확립하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대상자를 위원회에서 자체 발굴한 데에 따른 것이다.

위원장 표창 대상자는 총 58명이며, 완산경찰서 강성환 경위, 조성민 순경, 덕진경찰서 고진영 경사, 권보라 순경, 익산경찰서 양선경

경장, 완주경찰서 진혜인 순경 등 대표성 있는 6명만 참석한 가운데 수여식을 진행했다.

완산경찰서 서학과출소 강성환 경위는 금융기관, 금은방, 편의점 등 현금다액취급업소를 대상으로 민·경 협력치안 활동 전개 및 불심 검문으로 절도범을 검거하는 등 범죄예방 활동에 기여했으며, 덕진경찰서 역전파출소 권보라 경위는 신고사건 처리 중 우물증세를 보인 피해자를 신속히 발견하여 조치를 취하는 등 추가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유공을 높게 사 표창 수여 대상으로 선정됐다. /김재훈기자

고병원성 AI 발생 전북 72% 집중

따뜻한 날씨로 철새의 남하거리 길어져... 전북 금강, 정읍천 등 이동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가 전북에서 집중 발생하면서 확산조짐을 보이고 있어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전북에서 발견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 발견 농가는 18건이다. 전국(25건)에서 발생한 것에 비해 약 72%가 전북에 집중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김제 10개 농가, 익산 5개 농가, 부안 2개 농가, 완주 1개 농가에서 고병원성 AI바이러스가 검출됐다.

고병원성 AI 발생으로 전북의 49개 239만 1000마리의 닭·오리가 살처분됐다. 지난해 18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해 32만 4000마리가 살처분된 것에 비하면 농가수로는 172.2%, 살처분된 닭·오리 수로는 637.9% 증가한 셈이다.

그렇다면 올해 전북에서 AI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을까.

도 방역당국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온상승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도 방역당국이 AI바이러스의 주된 감염원인 철새들에 대한 GPS를 부착해 분석한 결과 철새의 이동이 타 지역을 거치지 않고 전북으로 바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다.

지난해만 하더라도 철새의 이동경로는 경기도 용인 청미천과 안성 안성천을, 충남 공강천 등을 거쳐 남하했다.

하지만 올해 철새들의 이동은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전북의 금강·민강·정읍천 등으로 이동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철새들의 비행 시간이 증가, 남하거리가 길어졌다는 것이다.

또 저수지와 평지, 낙곡 등으로 먹이감이 풍부한 전북으로 철새들이 집중 이동한 것으로 봤다.

도 방역당국은 AI확산을 위해 방역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뉴시스

올해 마지막 일몰 못 본다...해맞이는 '제주도 외' 가능

2023년 마지막 날까지 전국에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해돋이를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2024년 갑진년(甲辰年)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해맞이를 할 수 있겠으나, 해돋이 명소로 꼽히는 제주도 성산일출봉은 새해 첫 일출도 맞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28일 정례 예보 브리핑에

서 "29일까지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다"며 "이번 주말(30~31일)은 저기압 영향권에 들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다"고 전했다. 올해 마지막 주말(30~31일) 동안 중부내륙과 높은 산지를 중심으로 함박눈이 내리며, 일부 중부내륙과 강원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표될 수 있겠다. /뉴시스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